기성어버트먼트와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 증례

이앤치과
남현석

Introduction

Simple is best treatment. 임상가 입장에서 평소 좋아하는 문장이다. 본원에서 스캐너 도입 전 임플란트 보철 과정에서 다수 임플란트에서는 픽업 코핑을 이용한 인상을, 단일 임플란트에서는 기성 어버트먼트를 다이렉트로 인상 채득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. 픽업 코핑을 이용하는 방식은 기공 과정이 추가되고 오류 발생가능성이 한번 더 증가하며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다이렉트 인상은 마진을 인기해내야 한다는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유발한다. 본원에서는 구강 스캐너 도입 후 임플란트 치료과정을 좀 더 심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.

Conclusion

임플란트 제조회사는 기성어버트먼트를 일률적인 공정과정으로 만들어낸다. 기성어버트먼트의 스캔데이터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대부분 제공하며 이를 기공소와 공유할 수 있다. 본원에서는 원하는 출현윤곽의 기성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스캔을 하며 마진인기 없이 상방의 D-cut 부분만 정확하게 스캔한다. 그리고 기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어버트먼트의 모양 및 인기되지 않은 마진을 구현해내며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핏의 일률적인 기공물은 만들어 낼 수 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가 원하는 치아 사이즈 및 출현윤곽으로 진행이 가능하다. 본원에서 현재 싱글 임플란트는 대부분을 기성어버트먼트를 이용하며 멀티플 임플란트는 기성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혼용하거나 간혹 구강 내 밀링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. 단 임플란드 수술시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임플란트 패스가 필요하며 이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.